

종합·해설

소아마비 장애...19세 사시합격 헌재소장까지 오른 '감동 신화'

■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누구

광주고법서 법관 생활...사회활동도 왕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인계 업무를 총괄할 김용준(74)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소아마비를 딛고 헌법재판소장까지 오른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첫 법조인 출신 인수위원장이 된 그는 18대 대선 기간 정몽준 의원·황우여 당 대표·김성주(56) 성추적그룹 회장과 함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박근혜 당선인의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박 당선인의 정권 인수 인계 업무를 총괄하게 된 그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입학, 대학 3학년 때인 만 19세에 고등고시(현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해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뎠다.

이후 그는 서울가정법원·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의 부장판사 생활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지체장애인이

로선 최초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에 올랐다.

그는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참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것을 비롯해 적지 않은 소신판결로 후배 법관들의 사표로 인정받았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과외금지 사건, 군 제대자 가산점제, 택시소유상한제, 동성동반 결혼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을 지내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왔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넥스에 고문으로 직을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치권과는 거리를 뒀으나 이번 대선 국면에서 박

근혜 대선 후보 중앙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박 당선인은 김용준 공동선대위원장이 인선 배경에 대해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며 "앞으로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 법치와 원칙, 헌법의 가치를 잘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법무법인 넥스 사무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반드시 지켜줬다고 한 민생·약속·대통합 대통령 등 3가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보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운영의 연속성·안정성을 위해 인수위 업무를 지원감독하는 등 위원장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되, 직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수위원들과 논의해서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태생 ▲서울대 법대 ▲고등고시 9회 ▲서울가정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법무법인 넥스 고문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법무법인 넥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과 성격 5년 국정 운영 '밧그림' 완성 청와대·내각 인선 막중 책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핵심 인선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권인수 작업에 착수한다.

인수위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점에서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다.

우선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내년 2월25일까지 활동하면서 정부 부처와 청와대의 주요 현안 및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차기 정권이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정 비전과 대선 공약의 구체화, 정부조직 개편, 조각(組閣), 청와대 인선 등 차기 정부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짠다.

구체적 업무를 살펴보면 인수위는 당선인의 다양한 비전과 공약을 현 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어받을 것은 유지한다.

재정 건전성 등을 가능하면서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공약을 차내는 작업도 인수위에서 이뤄진다. 당선인이 국정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다시 짜는 것도 인수위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

당선인의 비전을 철학하고 청와대 진용을 짜는 것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인수위의 업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수위에 참여한 인사가 내각이나 청와대에 중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인수위는 정부 조직의 산실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전체 인수위원 111명 가운데 76명, 즉 69%가 청와대나 정부의 고위직에 기용된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의 권한이 강화되고 현재의 정부와 차별화 등을 시도하면서 각종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인수위=점령군'이라는 공식과 '줄 서기' 관행도 생겨났으며 정권 교체 후의 권력 다툼도 심심찮게 발생했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관행과 악습을 끊어내겠다는 취지로 작은 규모의 '실무형'이자 '조용한' 인수위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인수위원 프로필

'박근혜 대선공약' 개발 총괄

■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기구였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대선 공약' 개발을 실무적으로 책임진 서울 출신의 3선 의원.

4·11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 5월 정책위의장에 선출되면서 박 당선인의 총선공약 입법화 및 예산 반영 작업을 주도했다.

판사 출신으로 1997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특보로 정치에 입문했다. 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당대표였던 지난 2004~2005년, 10개월여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무거운 입'에 매끄러운 일처리 솜씨를 드러냈다. 부인 정미영(57)씨와 1남1녀.

▲서울(62)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합격(17회)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변호사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17, 18, 19대 국회의원(서울 용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호남 두자릿수 지지율 일등공신

■ 한광욱 국민대통합위원장

'김대중(DJ)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으나 18대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에 합류, '100%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대선 과정에서는 과거 유신시절 피해자,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들, 동고동락 인사들을 새누리당으로 합류시켰고 호남 선거를 도와 박 당선인이 호남에서 두자릿수 지지율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4선 의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출범 후인 1998년 초대 노사정위원회장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었다.

▲전북 전주(70) ▲서울대 영문과 ▲제11·13·14·15대 국회의원 ▲국민회의 부총재 ▲대통령 비서실장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민주당 상임고문



故노무현 대선 도운 정통 'DJ맨'

■ 김경재 국민대통합 수석부위원장

정통 'DJ(김대중 전 대통령) 맨'이지만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도운 호남의 유력 정치인.

지난 1971년 당시 김대중 신민당 대선 후보 선전기획위원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유신시대로 접어들면서 도미(渡美), 여권이 취소되자 15년간 사실상 미국 망명생활을 하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 귀국한 이후에는 'DJ맨'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15·16대 국회의원(순천)을 지냈고, 2002년 대선 때도 후보본부장으로서 민주당 노무현 대선 후보를 도왔다.

▲전남 순천(70) ▲서울대 정치학과 ▲김대중 총재 특보 ▲15·16대 국회의원 ▲민주당 중앙위원·최고위원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민대통합 기획담당특보



20~30대 '빨간운동화' 이끌어

■ 김상민 인수위 청년특위위원장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새누리당 초선의원. 아주대 졸업 후 대학생자원봉사단 'V원정대'를 설립해 이끌었다.

국회의원이 된 뒤 당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취약층인 20~40대 세대의 교역할을 해왔다.

'반값등록금' 등 대학생 겨냥 공약개발에 참여하거나, 박 당선인의 대외 방문에 동행하는 등 박 당선인의 젊은층 친근성 확장을 도왔다.

대선 기간에는 20~30대로 구성된 '빨간운동화'라는 선거유세단을 이끌면서 현장 유세를 기획했다.

▲경기 수원(39) ▲아주대 사학과 ▲아주대 총학생회장 ▲대통령 국민소통비서관실 정책자문위원 ▲대학생자원봉사단 V원정대 대표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선 중앙선대위 청년본부장



순천 출생 의사... 5·18때 통역

■ 인요한 국민대통합 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기구였던 100%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던 의사 출신의 귀환인.

1959년 순천에서 출생한 인요한(미국명 존 린튼) 부위원장은 아버지의 외조부가 1895년 선교활동을 위해 이주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으며 5대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 통역을 했던 이력도 있으며, 1987년 서양인 최초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국인진료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며 지난 3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순천(53) ▲연세대 의대 ▲연세대 의화박사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부교수·교수 ▲재단법인 유진벨 대표·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부총재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주임교수



경매 NPL 물건 특수 물건

- ▶실전 비법 배우실 분
- ▶1:1 개인 스테디
- ▶1인 1물건 추천
- ▶평생회비 550만원

투자자 모집

- ▶투자금 1억원 이상
- ▶단독/공동투자 가능
- ▶기간 1년정도
- ▶고수의 보장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부동산 거래,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상담전화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상담전화 김종원 이사 010-8227-77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센터 [전북김제] 대8076㎡, 건5004㎡, 감평가 25억, 최저가 6억 5천 주유소 [나주남평] 대4428㎡, 건5533㎡, 감평가 10억6천, 최저가 5억4천 원룸 [계림동] 대3333㎡, 건3803㎡, 감평가 6억7천, 최저가 3억7천 공장 [나주공산] 대29710㎡, 건1826㎡, 감평가 17억, 최저가 8억 공장 [장성동화] 대1983㎡, 건2320㎡, 감평가 7억, 최저가 3억 9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 [웅진동] 대2315㎡, 건1542㎡, 감평가 22억, 최저가 14억 신안해 [횡집, 판매] 대4706㎡, 건1123㎡, 감평가 18억, 최저가 8억 상가 [신항동] 대 67㎡, 건 134㎡, 감평가 2억4천, 최저가 1억1천 숙박시설 [치평동] 대704㎡, 건2042㎡, 감평가 32억, 최저가 22억 임야 [전주완산] 대지 20975㎡, 감평가 3억3천, 최저가 1억3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대촌동 [2층공점] 대지 1506평, 건물 1031평, 감평가 39억8천, 매매가 25억5천 북구 대촌동 [2층공점] 대지 3289평, 건물 1601평, 감평가 52억4천, 매매가 36억7천 목포 상동 [숙박시설] 대170평, 건544평, 감평가18억6천, 최저가13억1천 무안 망운 [숙박시설] 대257평, 건346평, 감평가11억, 최저가6억2천 화순 도곡 [무인텔] 대190㎡, 건2,262㎡, 감평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영광법성 [근린상가] 대1106평, 건1297평, 감평가134억8천, 최저가24억4천 목포 상동 [근린주택] 대1697, 건2044평, 감평가88억, 최저가76억2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정동 [창기외예식장] 대지 330평, 건물 1357평, 감평가 41억5천, 매매가 20억(협의후결정) 운남동 [근린시설] 대지 352평, 건물 1047평, 감평가 39억5천, 매매가 27억7천 여수학동 [근린상가] 대136평, 건513평, 감평가15억, 최저가 10억5천 구례 용평 [공점] 대1295평, 건3633평, 감평가11억, 최저가7억4천 목포 상동 [근린주택] 대1697, 건2044평, 감평가88억, 최저가76억2천 사구 치평동 [숙박시설] 대213평, 건1617평, 감평가132억, 최저가22억4천 북구 용연동 [공점] 대7009평, 건4233평, 감평가22억7천, 최저가14억9천

임대 및 매매 감수회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 12월31일 오픈 예정인 (주)솔향기(주)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한모(여)2명, 실컷이(여)1명, 출서빙6명, 매니저(남, 여)2명, 매점(여)1명, 경리(여)1명, 영업부(남, 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통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 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24년에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묵욕당
- 고시원
- 디가주택, 원룸, 투룸, 스트리움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 ~ 300평, 용도지역: 자연녹지, 용도 :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용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상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대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완료, 매대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철거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의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우리부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